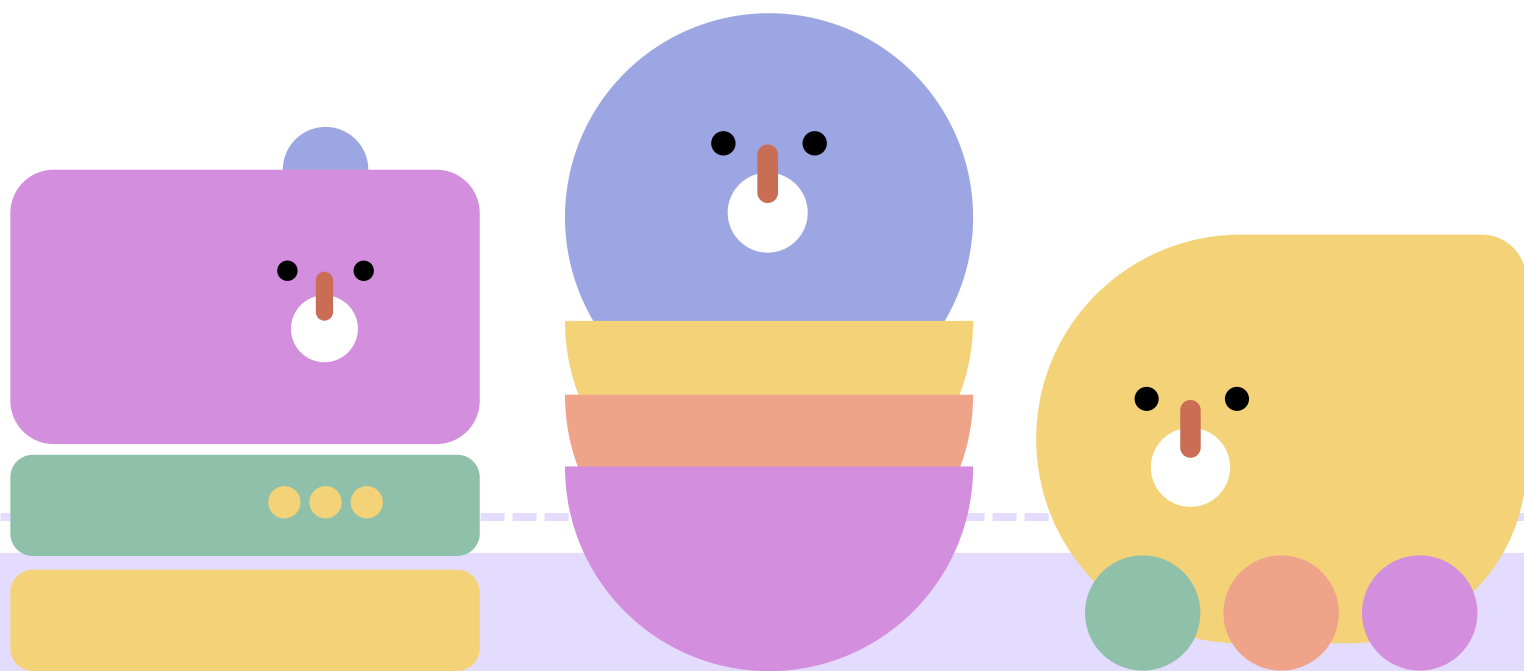


Q.

영유아 부모가  
그림책을 읽어 줄 때  
꼭 알아야 할 것은  
무엇일까요?



# 그림책 읽기는 ‘가르치는 시간’이 아니라 ‘함께 머무는 시간’입니다



0~5세에게 그림책 읽기는  
내용을 이해시키는 활동이 아닙니다.

부모의 목소리, 옆에 있는 느낌, 함께 페이지를 넘기는 시간이  
영유아에게는 가장 중요한 배움의 토대가 됩니다.

# 끝까지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

---



영유아가 중간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 
책을 덮어도 실패가 아닙니다.

영유아의 집중은 짧고 파동처럼 오갑니다.  
책에 머무른 만큼, 본 만큼이 그날의 책 읽기입니다.

#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어 달라는 것은 ‘안정’을 원하는 신호입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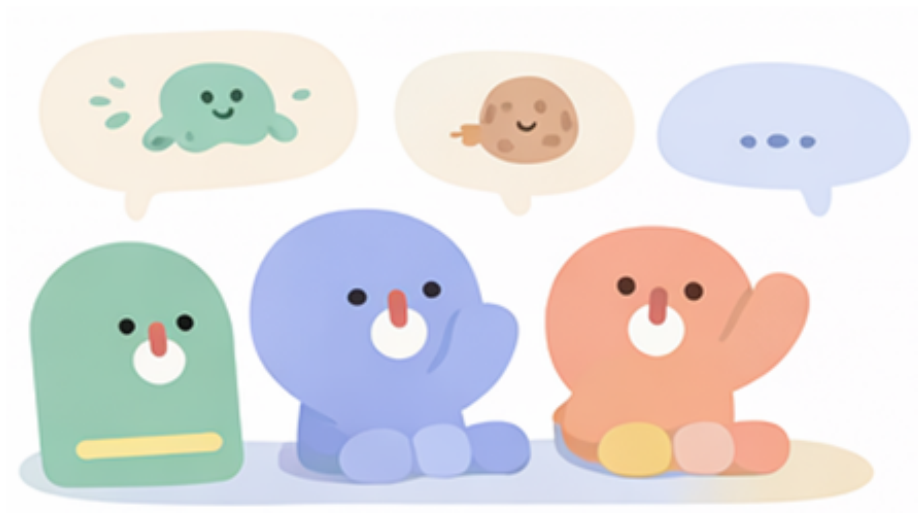
---



영유아에게 반복 읽기는 지루함이 아니라  
익숙함과 예측의 즐거움입니다.

같은 장면, 같은 말, 같은 목소리가  
영유아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.

# 영유아의 질문과 끼어들음은 방해가 아니라 배움의 방식입니다



이야기가 중간에 끊겨도 괜찮습니다.  
질문하고,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, 자기 경험을 말하는 것은  
책을 ‘자기 이야기’로 만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

# 부모가 피곤할 땐 ‘덜 읽어도’ 충분합니다



목이 아프면 속삭여도 되고,  
글을 읽기 힘들면 그림만 함께 바라봐도 됩니다.

영유아에게 오래 남는 것은  
완벽한 읽기가 아니라 함께했던 따뜻한 감정입니다.

# 중요한 건 ‘몇 권을 읽었는지’가 아닙니다

---



0~5세에게 그림책은 학습량이 아니라 관계의 기억입니다.

책과 함께했던 안정감, 즐거움, 연결의 경험이  
영유아의 언어와 정서, 배움의 바탕이 됩니다.